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227>

JCCT 2024-5-27

##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 판별요인 분석: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scriminant Factors of Political Orientation of Korean People: Focusing upon Welfare Attitudes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는데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진보와 보수로 구분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며 핵심 종속변수는 복지태도의 두 가지 측면,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정치에 대한 관심, 경제활동 상태, 교육수준 등이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판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임시직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응답자 연령', '복지태도\_증세', '복지태도\_보편 vs 선별', '정치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 집단의 79.8%, '보수' 집단의 81.2%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적중률은 80.2%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정치적 성향, 복지태도, 판별분석, 판별함수, 분류적중률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potential effects of welfare attitudes of Korean people upon their political orientation. The 17<sup>th</sup> Korea Welfare Panel Data(KWPD) in 2022 are used for this purpose. Independent variable include sex, age, education, interest in politics, and employment status. Discriminant analysis show several results. First and foremost, pre-established discriminant function works well for classification of respondents' liberal vs conservative stance. Secondly, except gender and dummy variable for temporary employed, all independent variables contribute significantly for the classification at a given significance level. . Finally, welfare attitudes of respondents', measured by universalism vs selectivism and the attitudes upon increasing tax for welfare expenditures are found to be significant and relatively big impacts upon dependent variable, comparad to other variables in the model. The natur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political orientation remai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Political Orientation, Welfare Attitudes, Discriminant Analysis. Hit Ratio

\*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접수일: 2024년 3월 7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7, 2024 / Revised: April 1,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Hanyang Cyber Univ. Korea

##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는데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복지국가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나라의 경우, 복지에 대한 태도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깊게 분석하고 있는 변수이다. 복지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의 대부분이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했다면, 이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는데 복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년도 자료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과거 문헌에 기반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과 분석 모형, 그리고 분석에 투입될 변수가 소개될 것이다. 자료의 분석에 활용될 판별분석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한 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이론적 배경

#### 1). 정치적 성향과 이념

정치적 성향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이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이념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에 대한 이미지와 지향의 근거이며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과 사상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1]. 한 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이념형적으로 볼 때, 진보가 불합리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극복을 중시하고 집단(계급 포함)간 갈등을 사회변화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반면, 보수는 집단이 합의한 윤리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근원적 차이에 기반하여 진보는 국가나 정부 개입의 확대, 보수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지향이라는 대립항으로 발전하게 된다 [2].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념의 역할은 집단의 생존과 안

녕을 위해 불확실함과 자원제약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며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정책’으로 실제화되며 정책을 권력을 담지하고 있는 집단이 정의한 바람직한 사회상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자원과 권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방침’으로 정의할 때, 서두의 ‘바람직한 사회상태’에 대한 상(image, 象)에 대한 지지의 근거가 바로 이념이 된다 [3-4].

#### 2). 정치적 성향 결정 요인

이 연구의 핵심변수는 복지태도(보편 vs 선별, 복지 위한 증세)와 정치적 성향이며 분석 지점은 정치적 성향의 판별에 복지태도가 갖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검토는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과거 국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세대(또는 연령)와 지역을 들 수 있다. 많은 실증 분석 결과는 소위 ‘한국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유신 세대’, 또는 ‘386 세대’ 등의 생애집단들이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세대와는 다른 연령과 이념의 중요성을 파악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7-8].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대 또는 연령대별로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드러난 결과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경우 복지를 위한 증세와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구의 경우 역시, 젊은 세대의 진보에 대한 지지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보수적 성향과 태도가 강해지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9-10].

#### 2. 분석자료 및 가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빈곤패널 및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한 결과물이다. 2006년도에 7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된 2022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는 응답자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문항을 활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 시점 당시 20세에서 80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응답자 집단이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에 그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원자료는 5점 척도(‘매우 진보’/‘진보’/‘중도’/‘보수’/‘매우 보수’)를 가공하여 먼저 ‘중도’ 응답자를 제외\*\*\*한 다음 ‘진보’와 ‘보수’ 두 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응답자 연령, 응답자 교육수준, 응답자 근로형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들인 복지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연령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20에서 80세까지의 응답자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에 대한 순서형 척도로, 근로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더미 변수화 한 다음 분석에 투하였다. 복지태도는 ‘사회서비스 대상측면에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태도’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을 묻는 두 문항을 활용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문항의 응답 결과의 상관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며( $r = .004$ ), 이는 복지태도에도 다른 하위 영역 또는 측면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 3. 분석기법: 판별분석

판별 분석은 목적은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판별분석의 가정은 첫째, 판별함수 도출에 사용된 개체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도출된 표본이어야 하며, 둘째, 판별변수의 부분 집단들의 모집단 분

포가 동일한 공분산행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판별분석의 단계는 먼저 개별 사례가 속한 집단을 구분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변수를 찾는 다음,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변수, 즉 판별함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한 분류의 정확도를 파악한 후, 도출된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례가 속하는 집단을 예측하게 된다.

판별함수는 다음과 같다.

$$Z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dots + B_nX_n$$

Z: 판별점수, B<sub>0</sub>: 판별상수, X<sub>1</sub>, X<sub>2</sub>...X<sub>n</sub>: 판별변수, B<sub>1</sub>, B<sub>2</sub>...B<sub>n</sub>: 판별계수

## III. 분석결과

표 1.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결과

Table 1. Tests of Equality of Group Means

변수	Wilk's 랏다	F	df1	df2	p
성별(여성이 1)	.999	1.603	1	1311	.206
연령	.930	98.617	1	1311	.000
교육수준	.958	57.986	1	1311	.000
정치에 대한 관심도	.991	12.263	1	1311	.000
사회서비스 대상	.981	25.545	1	1311	.000
복지위한 증세	.990	13.575	1	1311	.000
경제활동참여상태(상용직)	.985	19.507	1	1311	.000
경제활동참여상태(임시직)	1.000	.626	1	1311	.429
경제활동참여상태(자영업)	.993	9.473	1	1311	.002

표 2. 정치적 성향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Table 2. Summary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	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성별(여성이 1)	-.144	-.289	.802

연령	.679	.047	- .615			
교육수준	-.158	-.113	.408			
정치에 대한 관심도	.266	.257	-.356			
사회서비스 대상	.291	.223	.297			
복지위한 증세	.360	.233	.283			
경제활동참여상태( 상용직)	-.062	-.135	.248			
경제활동참여상태( 임시직)	.013	.032	-.102			
경제활동참여상태( 자영업)	.086	.249	-.064			
상수				-4.11 9		
Eigen Value	Cononical Correlatio n	Wilks' Lamda	$\chi^2$	df	p	
.428	.324	.895	144.656	9	.000	

표 3. 함수계수에 의한 분류결과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s

실제 집단	집단 중심치	예측되는 소속집단(%, 명)		사례수	분류 정확도 (%)
		진보	보수		
진보	-.356	<b>79.8</b>	<b>20.2</b>	630	81.2
		502	128		
보수	.328	<b>18.8</b>	<b>81.2</b>	683	
		129	554		

먼저, 표 1에 따르면,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성 가정을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이 .0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람다값(집단내 제곱합/전체 제곱합)을 통하여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을 유의하게 판별해 내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별(p = .206)’과 ‘임시직 여부(p = .429)’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Wilks의 람다 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p = .000),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변수와 실제 판별그룹간의 관계 정도는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는 .324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난 중회귀부식에서 표준화 회귀계수에 해당하는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를 살펴본 결과,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응답자 연령(.679)’, ‘복지태도\_증세(.360)’, ‘복지태도\_사회서비스 대상(.291)’, ‘정치에 대한 관심(.266)’, ‘교육수준(-.158)’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의 구분에는 응답자의 연령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며, 두 개의 변수로 측정된 응답자 복지태도의 판별효과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표 3에 나타난 각 집단의 판별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집단 중심값은 진보가 -.356, 보수가 .328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분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판별함수가 실제 집단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정확도(hit ratio)를 살펴 본 결과, ‘진보’ 집단의 79.8%, ‘보수’ 집단의 81.2%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중률은 80.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IV. 토론

이 연구의 가설은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의미있게 구분하는지 여부이다. 가설의 검정을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자료이며 분석 기법은 판별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결과를 요약 기술하자면, 판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임시직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응답자 연령’, ‘복지태도\_증세’, ‘복지태도\_보편 vs 선별’, ‘정치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 집단의 79.8%, ‘보수’ 집단의 81.2%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적중률은 80.2%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분석결과, 가설로 제기된 복지태도의 정치적 성향 판별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의미있는 수준에서 구분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찌 보자면, 정치적

성향이 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서 복지에 대한 태도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복지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들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이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과 복지태도 간의 역인과관계(inverse causality) 가능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 가지 추가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첫 번째,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이 연구에서 모형에 투입한 독립변수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세금에 대한 형평성이나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가치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변수들은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는데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복지태도는 두 개의 변수, 즉 사회서비스 대상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만으로 측정되어 있으나, 복지패널 자료에는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복지태도 측정 문항들이 존재한다. 특히 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은 세대별, 성별, 소득수준별 등으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복지태도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 및 농어촌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을 한층 증가시켰으며 조사내용 또한 가구특성, 가구경제상황, 가구 및 가구원의 복지수급 및 복지욕구 등을 포괄하고 있다.

\*\* 복지태도에 대한 문항은 2010년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활용된 바 있다.

\*\*\* ‘중도’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견(정치적 성향으로서 중도, 비체계적 오차 요인으로서 불성실한 응답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어 옴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원자료에는 ‘일용직’, ‘공공자활노인일자리 등’,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의 응답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References

- [1] Changyong Choi, Seulki Choi., “A Study on Ideological Terrain and Policy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4(1):157, 2018
- [2] Jensen, R. & Thursby, M., “Proofs and Prototypes for Sale: The Licensing of University Inven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1, No.1, 2001.
- [3] Kwonsik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Choices upon Welfare Policy Ideology and Policy Methods”, *Korean Society and Administration Study*, vol 24, no 1, pp. 830112, 2013.
- [4] Sungbok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Policy Conflicts”, Conference Paper of Korean Government Study Association, pp. 443-468, 2012.
- [5] Howlett, Michael. “Governance Modes, Policy Regimes and Operational Plans: A Multi-level Nested Model of Policy Instrument Choice and Policy Design.” *Policy Science*, 42(1), pp. 73-89, 2008.
- [6]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7] O'Donnell G.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8] Binstock, R. and Jill Quadagno. *Aging and Politic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San Diego: Academic Press. 2001.
- [9] Jennings, M. and Richard G. Niemi. *Generations and Politics: A Panel Study of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10] Shinyoung Kim, “A Exploratory Study on Landscape of Welfare Attitude of Korean.”, *Social Science Study*, vol 29(1):25-57, 2016.